

영암군 삼호읍 서부출장소, 주민복합문화공간 리모델링

지역주민 소통·화합의 커뮤니티 공간 카페테리아·독서실·여성휴게실 등 구비

영암군은 신축년 새해를 맞이하여 삼호읍 서부출장소를 한마을회관 2층 주민복합 문화공간으로 확장 리모델링하여 업무를 개시하였다. 개소식은 1월 5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간소하게 진행되었다.

삼호읍 서부출장소는 지난 2000년 옛 시장건물에 입주하여 사용해 왔으나 건물이 노후화 되어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으며 주민들의 접근성이 떨어져 주민편의시설이 입주해 있는 한마을회관으로 확장 이전하게 되었다.

민선 7기 출범 이후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작년 9월 한마을회관 2층에 598㎡(176평)의 공간을 마련하여 서부출장소와 예비군서부출장대 그리고 용당방범대를 함께 이전하게 되었으며 지역주민의 소통과 화합의 커뮤니티 공간으로 카페테리아, 남·녀 독서실, 여성휴게실, 다목적 회의실 등을 함께 구비하여 민원 업무 처리 및 주민편의 시설로서 복합 행정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기존의 서부출장소에는 삼호 어울림 문화체육센터 건립이 추진중에 있다. 전동평 영암군은 “2018년 삼호읍 행정복지센터가 새롭게 개청하고 출장소가 이번에 새롭게 이전하게 되어 삼호읍 위상에 걸맞는 행정 시설을 갖추게 되었으며 앞으로 삼호읍의 발전과 읍민을 위한 공간으로서 큰 역할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영암=조대호 기자



영광군, 유료 공영주차장 월정기주차권 선착순 신청 안내

할인 목적 도입...월 정기권 요금 35000원

영광군은 2021년 2월부터 유료 공영주차장인 영광터미널 공영주차장과 우시장 주차광장에 월정기 주차권을 적용한다. 작년 7월에 실시한 유료화로 주차 문제는 해소되었으나, 일부 활용이 줄어든 주차면의 이용률을 높이고 주차장 방문이 많은 군민들을 위한 할

인 목적으로 월정기 주차권을 도입하였다. 월정기주차권은 영광터미널 공영주차장 100매, 우시장 주차광장 30매 범위에서 1인당 1매 선착순 신청받으며, 신청한 월의 다음 달 동안 이용이 가능하다. 또한 월정기권 요금은 35,000원이며, 감면대상자는 신청 시 증빙서

류를 함께 제출하면 최대 50%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신청 희망자는 자동차등록증, 신분증 등의 구비서류를 갖춰 매월 1일부터 ~ 10일 업무시간 이내(09시 ~ 18시)에 군청 안전관리과에 방문 및 결제를 통하여 신청이 가능하며, 최초 접수하는 1월에는 11일부터 ~ 21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영광=서희권 기자

무안군,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 신청 접수

공동주택단지 노후 공용시설물 보수·관리비용 지원

무안군은 관내 공동주택단지 내 공용시설물 유지보수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2021년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사업비는 1억 3000만원으로 지원대상은 사용검사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 70개 단지(최근 5년 이내 지원받은 같은 대상 제외)이다.

지원 범위는 ▲단지 내 가로등의 시설 보수 ▲하수도 준설 및 유지보수 ▲어린이놀이터 및 경로당 등 주민공동 시설물 보수 ▲단지안의 도로 및 주차장 유지보수 ▲그 밖의 주민공동 이용시설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단지는 무안군 홈페이지 '2021년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

원사업 시행공고'를 참고하여 2월 4일부터 2월 19일까지 무안군청 건축과 공동주택팀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관계자는 “이번 사업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입주민들의 복리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무안=이기성 기자

고찬훈 함평군 자원기술팀장, 대통령 표창 수상

국향대전 기획·국화 신품종 개발 등 공로

고찬훈 함평군농업기술센터 자원기술팀장이 지역 대표축재인 국향대전 기획과 국화 신품종 개발 등의 공로로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지난 2003년 공직에 입문한 고 팀장은 이듬해인 2004년 ‘대한민국 국향대전’을 처음 제안해 현재도 전시·연출을 총괄 기획하고 있다. 그동안 국향대전은 누적 유료입장객 334만3천 명, 총수입 237억9천만 원, 축제장 내 농·특산물 판매액 73억9천4백만 원을 기록하면서 함평나비축제와 함께 지역대표 축제로 발돋움했다. 고 팀장은 또 국내 환경에 맞는 국화 신품종 개발에 매진하면서 지난 2010년 자체 개발한 ‘국향만홍’을 시작으로 올해까지 국화분재 11종, 현애국 6종, 화단국 4종 등 총 21종의 국화 품종보호권을 획득했다. 특히 지난해 품종보호권을 획득한 ‘나비연옥황’은 국내 국화분재 신품종 중에서 방사선 돌연변이 육종 방식이 쓰인 전국 최초의 케이스로 국제식물신품종보호연맹(UPOV)의 협약에 따라 함평군은 향후 20년간 해당 품종에 대한 독점·배타적인 권리를 갖게 됐다. 고찬훈 팀장은 “그동안 동고동락하며 같이 고생한 함평군기술센터 직원들을 대표해 받은 상이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조기 개화하는 국화 신품종 개발을 비롯해 누구

도 따라할 수 없는 국향대전 기획으로 타지역과 차별화된 함평만의 국화축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함평=김광춘 기자

목포시,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단체보험’ 지원 오는 3월부터 직접 지원 안심보육환경 조성에 한발 더

올해부터 목포 지역 어린이집은 영유아 원생의 안전사고에 대비해 가입한 안전공제회 단체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목포시는 어린이집에서 발생하는 각종 안전사고에 대한 종합적인 보상 체계 구축을 위한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단체보험’ 100% 가입을 추진하는 한편, 오는 3월부터 보험료를 직접 지원해 안심보육환경 조성에 한 발 더 나아가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보험은 영유아 보육법에 따라 영유아의 생명·신체 피해 보상을 위해 필수적으로 가입해야만 한다. 시는 올해 예산 9천만원을 확보하여 관내 전체 어린이집 185개소의 아동 7,500명과 보육교직원 1,900여명에 대한 안전공제회 보험료를 지원한다. 이에 따라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와 보육교직원은 2021년 3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어린이집 내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한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안전공제회 가입보험 주요 보장내용은 ▲영유아 생명·신체 피해 배상 ▲놀이시설 배상 ▲가스사고 배상 ▲화재배상 책임 특약 등이며, 2021년 개원예정인 어린이집도 계약에 따라 추가 비용 없이 가입이 가능해 혜택의 폭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환경에서 단체보험료 지원이 보호자와 어린이집의 부담을 경감 시킬 것으로 기대하면서 앞으로도 부모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목포=박정수 기자

영암군, ‘함께 읽는 힐링동화’ 실시 예정

영암군은 6월부터 15일까지 드림스타트 대상 가정 중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하여, 코로나 19 대응 철저한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함께 읽는 힐링동화’ 프로그램을 실시할 예정이다. ‘함께 읽는 힐링동화’는 드림스타트 아동들의 인지·언어 발달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구름빵’으로 유명한 백희나 작가의 동화 그림책 ‘알사탕’을 드림스타트 대상 아동과 부모가 함께 읽고 이야기를 나누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하였다. 영암군 드림스타트 관계자는 “대상 아동들이 부모와 함께 책을 읽고 이야기를 나누며, 아동들의 올바른 인지·언어 발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도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아이들의 건강한 인지·언어 발달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영암=조대호 기자

에너지 스카우터 한수원

청정에너지의 오늘, 한수원이 펼치고 있습니다

더 편리하고 가치 있는 세상을 위해 청정에너지가 있는 곳 그 어디라도 한수원이 찾아가겠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주